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NOVEMBER
2025 11

SAEROUN QT

새벽예배 설교 한 흥 목사 · 매주 화-토 6:20 AM · 새로운교회(컨벤션홀)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 [신명기]



분노로 무너진 입다 리더십



사사기 11-12장에 나오는 입다는 입자전적인 인물입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까닭에 형제들로부터도 쫓겨나 먼 이방 땅에서 죽을 고생을 하며 컷지만, “큰 용사”가 되어 암문의 대군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 페이스대로 계속 갔다면 그는 기드온을 뛰어 넘은 위대한 인물로 역사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 최고의 순간에 입다의 인생에 최악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승리를 위해 경솔하게 했던 서원으로 인하여 외동딸을 제물로 내놓게 되었고, 입다의 승리를 시기하여 찾아와 입다를 겁박한 에브라임 지파 4만 2천 명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무례한 에브라임에게 복수하여 당장은 속이 시원했겠지만, 그다음부터 이스라엘 전체 지도자로서 이후 입다의 영향력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 성경은 입다의 사사로서의 나머지 생애를 딱 한 마디로 설명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으매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길르앗이 두 번 강조되는 데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입다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사사가 돼야 했었는데, 자신의 지지층인 길르앗만을 대변하는 지도자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나머지 다른 지파들과 내전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동서양의 많은 지도자들도 보면 처음에 자리에 오를 때는 자기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 품고 가겠다고 해놓고, 정작 권력을 잡고 나서는 반대파들을 향해 무자비한 정치 보복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그는 나라의 반쪽만을 대변하는 지도자로 끝이 납니다. 해결되지 못한 분노는 용서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리더십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입다가 사사로 있었던 시간이 겨우 6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소개된 그 어떤 사사들보다 임기가 짧았습니다. 에브라임의 무례를 참으며 이스라엘의 화평을 지켜낸 기드온은 사사들 중에 가장 긴 40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참지 못하고 형제들을 칼로 공격한 입다는 6년밖에 사사로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우연이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의 핵심 자질 중 하나로 온유와 겸손을 꼽습니다.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고, 예수님께서도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습니다. 지도자는 항상 반대하는 세력도 있고, 억울한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은 지도자는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며, 분노를 억제하고, 먼저 자신을 다스립니다.

입다 이전까지의 사사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가 다스리는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라고 되어 있는 데, 입다의 경우는 6년 사사로 있었다는 말만 있지,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는 말이 없습니다. 외적 암문은 물리쳤지만, 요단강에서 훌린 에브라임 사람들의 피가 평화를 깨뜨린 것입니다. 학자들은 입다의 재임 6년 동안 끊임없이 에브라임을 비롯한 형제들과의 반목과 싸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교회의 평안을 깨뜨리는 것은 꼭 외부의 요인이 아닙니다. 내부 형제 간의 불화가 더 큰 위협입니다. 형제끼리 불화하면 교회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약점을 덮어주고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훌륭했던 입다의 인생 전반전을 생각할 때, 그렇게 비참한 인생 후반전을 살 사람이 아니었기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분노의 노예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위대한 꿈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분노를 이기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새로운교회 담임목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NOVEMBER
2025 11

SAEROUN QT

새벽예배 설교 한 흥 목사 · 매주 화~토 6:20 AM · 새로운교회(컨벤션홀)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 [신명기]



2025.
11

SAEROUN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26	27 목회 리더십 컨퍼런스 ~10/29	28	29
2	3	4	5
9 전도축제	10	11	12
16 추수감사주일	17	18	19
새가족 130기 1주차			
23	24	25	26
30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 [신명기]

QT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0	31	1 편편 워커톤
6	7	8
13 수능 기도회	14	15 10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	21	22 12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7	28	29 순장 리트릿

2025.
11

1	토	에돔과 모압을 지날 때	신 2:1-12
2	주일	삼손이 태어나다	삿 13:1-25
3	월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자	눅 1:13-17
4	화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겼다	신 2:13-25
5	수	시흔 왕을 패하게 하신 하나님	신 2:26-37
6	목	바산 왕 옥을 물리치신 하나님	신 3:1-11
7	금	동쪽 땅을 기업으로 주시다	신 3:12-22
8	토	모세가 요단을 건너지 못하다	신 3:23-29
9	주일	[전도축제] 천국이 있습니다	계 21:1-8
10	월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노라	요 14:1-6
11	화	너희는 듣고 지켜 행하라	신 4:1-8
12	수	믿음의 전수	신 4:9-14
13	목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신 4:15-24
14	금	자비하신 하나님의 언약	신 4:25-31
15	토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신 4:32-40
16	주일	[추수감사절] 감사하는 습관을 키우십시오	시 136:1-26
17	월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가라	시편 100:1-5
18	화	도피성, 은혜의 경계	신 4:41-49
19	수	십계명, 언약의 시작	신 5:1-11
20	목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신 5:12-15
21	금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신 5:16-21
22	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신 5:22-33
23	주일	삼손과 딤나의 여자	삿 14:1-20
24	월	하나님의 섭리	창 50:15-21
25	화	쉐마 이스라엘	신 6:1-9
26	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	신 6:10-19
27	목	부모에게 배우는 교훈	신 6:20-25
28	금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신 하나님	신 7:1-11
29	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면	신 7:12-16
30	주일	삼손이 블레셋을 치다	삿 15:1-20

새로운 QT

경건의 시간을 갖는 방법

묵상(경건의 시간, QT)이란

- QT는
01.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02. 성경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03.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경건훈련입니다.

… 찬양과 기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하며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염려와 세속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나아가십시오.

… 본문 읽기와 묵상하기

본문 말씀을 2~3회 정도 읽은 후, 특별히 마음에 와닿거나 깨달아지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왜 내게 그 말씀을 주셨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또한 묵상(Meditation)과 적용(Application)의 질문을 참고하십시오.

… 적용하기

묵상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은 나의 잘못에 대한 지적이나 혹은 격려,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인도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적용하고 기록하십시오.

… 기도하기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구하며 하나님께 하루를 맡겨 드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 나눔

QT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변화된 나의 삶을 순예배에서 순원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또한 순예배 가이드를 참고해서 교재로 순예배를 드리고 나누십시오.



효과적인 중보기도를 위한 가이드

찬양과 기도

중보기도란 다른 사람을 위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내 가족과 이웃, 사회와 나라, 민족 전체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것이 중보기도에 포함됩니다.

중보기도의 순서

1. 회개

자신 안에 고백하지 않은 숨은 죄가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도록 성령님께 시간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함을 받습니다.

2. 개인과 가정을 위하여

- 1) 배우자와 자녀들의 영적성장과 건강,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 2)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3. 교회와 선교를 위하여

- 1) 담임목사님과 부교역자, 순장, 임직자 및 각 사역 팀장님들 위에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모든 사역 위에 기름부으심이 있도록 기도합니다.
- 2) 열방을 향한 선교의 비전이 확장되어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선교지에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합니다.

4. 사회와 나라를 위하여

- 1)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 외 모든 위정자와 정부 기관 위에 하나님 의 공의와 섬김의 정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 2) 이 나라에 건전한 경제 질서의 기반이 세워지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정직과 나눔, 청지기 정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 3) 올바른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 4) 인터넷, 신문, 방송, TV, 잡지 등 모든 언론 매체가 진실에 기반을 두도록 기도합니다.
- 5) 타 종교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경험되며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합니다.
- 6) 부부와 자녀, 그리고 형제 간에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는 사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순예배시

순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할 때

- 1) 지난주 순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을 받은 내용들에 대해 나누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 2) 새로운 기도의 제목들을 빙 칸에 적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를 합니다.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할 때

- 1) 선교와 사회참여에 관련해 요청된 기도제목들을 놓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 2) 우리 교회 내 다양한 사역부서들 가운데 매주 부서별로 올라온 기도제목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01

토

에돔과 모압을 지날 때

신 2:1-12

1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흥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 산을 두루 다녔더니

2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4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5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 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6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7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8 우리가 세일 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9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10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11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12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가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02

주일

삼손이 태어나다

삿 13:1-25

- 1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십 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Again the Israelites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so the LORD delivered them into the hands of the Philistines for forty years.

- 2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A certain man of Zorah, named Manoah, from the clan of the Danites, had a wife who was childless, unable to give birth.

- 3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The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her and said, "You are barren and childless, but you are going to become pregnant and give birth to a son."

- 4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Now see to it that you drink no wine or other fermented drink and that you do not eat anything unclean.

- 5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You will become pregnant and have a son whose head is never to be touched by a razor because the boy is to be a Nazirite, dedicated to God from the womb. He will take the lead in delivering Israel from the hands of the Philistines."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 [신명기]

- 6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우므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Then the woman went to her husband and told him, "A man of God came to me. He looked like an angel of God, very awesome. I didn't ask him where he came from, and he didn't tell me his name."

- 7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But he said to me, 'You will become pregnant and have a son. Now then, drink no wine or other fermented drink and do not eat anything unclean, because the boy will be a Nazirite of God from the womb until the day of his death.'

- 8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Then Manoah prayed to the LORD: "Pardon your servant, Lord. I beg you to let the man of God you sent to us come again to teach us how to bring up the boy who is to be born."



9 하나님의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God heard Manoah, and the angel of God came again to the woman while she was out in the field; but her husband Manoah was not with her.

10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 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The woman hurried to tell her husband, "He's here! The man who appeared to me the other day!"

11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이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Manoah got up and followed his wife. When he came to the man, he said, "Are you the man who talked to my wife?" "I am," he said.

12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So Manoah asked him, "When your words are fulfilled, what is to be the rule that governs the boy's life and work?"

13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The angel of the LORD answered, "Your wife must do all that I have told her."

14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인리 하니라

She must not eat anything that comes from the grapevine, nor drink any wine or other fermented drink nor eat anything unclean. She must do everything I have commanded her."

15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Manoah said to the angel of the LORD, "We would like you to stay until we prepare a young goat for you."

16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The angel of the LORD replied, "Even though you detain me, I will not eat any of your food. But if you prepare a burnt offering, offer it to the LORD." (Manoah did not realize that it was the angel of the LORD.)

17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Then Manoah inquired of the angel of the LORD, "What is your name, so that we may honor you when your word comes true?"

18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He replied, "Why do you ask my name? It is beyond understanding."

19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Then Manoah took a young goat, together with the grain offering, and sacrificed it on a rock to the LORD. And the LORD did an amazing thing while Manoah and his wife watched:

20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As the flame blazed up from the altar toward heaven, the angel of the LORD ascended in the flame. Seeing this, Manoah and his wife fell with their faces to the ground.

21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When the angel of the LORD did not show himself again to Manoah and his wife, Manoah realized that it was the angel of the LORD.

22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We are doomed to die!" he said to his wife. "We have seen God!"

23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But his wife answered, "If the LORD had meant to kill us, he would not have accepted a burnt offering and grain offering from our hands, nor shown us all these things or now told us this."

24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The woman gave birth to a boy and named him Samson. He grew and the LORD blessed him,

25 소라와 에스다을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and the Spirit of the LORD began to stir him while he was in Mahaneh Dan, between Zorah and Eshtaol.

03

월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자

눅 1:13-17

13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 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But the angel said to him: "Do not be afraid, Zechariah; your prayer has been heard. Your wife Elizabeth will bear you a son, and you are to call him John.

14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He will be a joy and delight to you, and many will rejoice because of his birth,

15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for he will be great in the sight of the Lord. He is never to take wine or other fermented drink, and he will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even before he is born.

16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He will bring back many of the people of Israel to the Lord their God.

17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And he will go on before the Lord, in the spirit and power of Elijah, to turn the hearts of the parents to their children and the disobedient to the wisdom of the righteous—to make ready a people prepared for the Lord."

04

화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겼다

신 2:13-25

13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14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
까지 삼십팔 년 동안이라 이 때에는 그 시대
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
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15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16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17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8 네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19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
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
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
니 이는 내가 그것을 룻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20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
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음이요 암몬 족속은 그
들을 삼숨밈이라 일컬었으며

21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
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
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22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
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
였으며

23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24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
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훈과 그
의 땅을 네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
서 그 땅을 차지하라

25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
니라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가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05

수

시흔 왕을 패하게 하신 하나님

신 2:26-37

26 내가 그데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흔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27 나를 네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28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29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30 헤스본 왕 시흔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31 그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흔과 그의 땅을 네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32 시흔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33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시매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34 그 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35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36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37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양복 강 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네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가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06

목

바산 왕 옥을 물리치신 하나님

신3:1-11

- 1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 자라
- 2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훈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라 하시고
- 3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매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 4 그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육십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 5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 6 우리가 헤스본 왕 시훈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 7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 8 그 때에 우리가 요단 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 9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론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 10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 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 11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아홉 규빗이요 너비가 네 규빗이니라)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가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07

금

동쪽 땅을 기업으로 주시다

신 3:12-22

12 그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으매 아르논 골짜기 곁의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13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14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야갓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15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16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양복 강까지며

17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18 그 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19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20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다니라 하고

21 그 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네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22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가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08

토

모세가 요단을 건너지 못하다

신 3:23-29

23 그 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At that time I pleaded with the LORD:

24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Sovereign LORD, you have begun to show to your servant your greatness and your strong hand. For what god is there in heaven or on earth who can do the deeds and mighty works you do?"

25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Let me go over and see the good land beyond the Jordan—that fine hill country and Lebanon."

26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 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But because of you the LORD was angry with me and would not listen to me. "That is enough," the LORD said. "Do not speak to me anymore about this matter."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 [신명기]

27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Go up to the top of Pisgah and look west and north and south and east. Look at the land with your own eyes, since you are not going to cross this Jordan.

28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But commission Joshua, and encourage and strengthen him, for he will lead this people across and will cause them to inherit the land that you will see."

29 그 때에 우리가 벳브을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So we stayed in the valley near Beth Peor.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09

주일

천국이 있습니다

계 21:1-8

- 1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Then I saw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for the first heaven and the first earth had passed away, and there was no longer any sea.

- 2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 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I saw the Holy City, the new Jerusalem, coming down out of heaven from God, prepared as a bride beautifully dressed for her husband.

- 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And I heard a loud voice from the throne saying, "Look! God's dwelling place is now among the people, and he will dwell with them. They will be his people, and God himself will be with them and be their God.

- 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곁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 이 다 지나갔음이려라

'He will wipe every tear from their eyes. There will be no more death' or mourning or crying or pain, for the old order of things has passed away."

- 5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He who was seated on the throne said, "I am making everything new!" Then he said, "Write this down, for these words are trustworthy and true."

- 6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He said to me: "It is done. I am the Alpha and the Omega, the Beginning and the End. To the thirsty I will give water without cost from the spring of the water of life.

- 7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Those who are victorious will inherit all this, and I will be their God and they will be my children.

- 8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But the cowardly, the unbelieving, the vile, the murderers, the sexually immoral, those who practice magic arts, the idolaters and all liars—they will be consigned to the fiery lake of burning sulfur. This is the second death."

10

월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노라

요 14:1-6

- 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Do not let your hearts be troubled. You believe in God; believe also in me."

- 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My Father's house has many rooms; if that were not so, would I have told you that I am going there to prepare a place for you?

- 3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And if I go and prepare a place for you, I will come back and take you to be with me that you also may be where I am.

- 4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You know the way to the place where I am going."

- 5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Thomas said to him, "Lord, we don't know where you are going, so how can we know the way?"

- 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Jesus answered,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11

화

너희는 듣고 지켜 행하라

신 4:1-8

- 1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Now, Israel, hear the decrees and laws I am about to teach you. Follow them so that you may live and may go in and take possession of the land the LORD, the God of your ancestors, is giving you.

- 2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Do not add to what I command you and do not subtract from it, but keep the commands of the LORD your God that I give you.

- 3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You saw with your own eyes what the LORD did at Baal Peor. The LORD your God destroyed from among you everyone who followed the Baal of Peor,

- 4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but all of you who held fast to the LORD your God are still alive today.

- 5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See, I have taught you decrees and laws as the LORD my God commanded me, so that you may follow them in the land you are entering to take possession of it.

- 6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Observe them carefully, for this will show your wisdom and understanding to the nations, who will hear about all these decrees and say, "Surely this great nation is a wise and understanding people."

- 7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 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What other nation is so great as to have their gods near them the way the LORD our God is near us whenever we pray to him?

- 8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And what other nation is so great as to have such righteous decrees and laws as this body of laws I am setting before you today?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가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12

수

믿음의 전수

신 4:9-14

9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 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 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 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Only be careful, and watch yourselves closely so that you do not forget the things your eyes have seen or let them fade from your heart as long as you live. Teach them to your children and to their children after them.

10 네가 호렙 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 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 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마

Remember the day you stood before the LORD your God at Horeb, when he said to me, "Assemble the people before me to hear my words so that they may learn to revere me as long as they live in the land and may teach them to their children."

11 너희가 가까이 나아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You came near and stood at the foot of the mountain while it blazed with fire to the very heavens, with black clouds and deep darkness.

12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 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Then the LORD spoke to you out of the fire. You heard the sound of words but saw no form; there was only a voice.

13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 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 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He declared to you his covenant, the Ten Commandments, which he commanded you to follow and then wrote them on two stone tablets.

14 그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 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And the LORD directed me at that time to teach you the decrees and laws you are to follow in the land that you are crossing the Jordan to possess.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가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13

목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신 4:15-24

15 여호와께서 호렙 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으니 너희는 깊이 삼가라

You saw no form of any kind the day the LORD spoke to you at Horeb out of the fire. Therefore watch yourselves very carefully,

16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so that you do not become corrupt and make for yourselves an idol, an image of any shape, whether formed like a man or a woman,

17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or like any animal on earth or any bird that flies in the air,

18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or like any creature that moves along the ground or any fish in the waters below.

19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And when you look up to the sky and see the sun, the moon and the stars—all the heavenly array—do not be enticed into bowing down to them and worshiping things the LORD your God has apportioned to all the nations under heaven.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 [신명기]

20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But as for you, the LORD took you and brought you out of the iron-smelting furnace, out of Egypt, to be the people of his inheritance, as you now are.

21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으니 The LORD was angry with me because of you, and he solemnly swore that I would not cross the Jordan and enter the good land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as your inheritance.

22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I will die in this land; I will not cross the Jordan; but you are about to cross over and take possession of that good land.

23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Be careful not to forget the covenant of the LORD your God that he made with you; do not make for yourselves an idol in the form of anything the LORD your God has forbidden.

24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For the LORD your God is a consuming fire, a jealous God.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가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14

금

자비하신 하나님의 언약

신 4:25-31

25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After you have had children and grandchildren and have lived in the land a long time—if you then become corrupt and make any kind of idol, doing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your God and arousing his anger,

26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얹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I call the heavens and the earth as witnesses against you this day that you will quickly perish from the land that you are crossing the Jordan to possess. You will not live there long but will certainly be destroyed.

27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The LORD will scatter you among the peoples, and only a few of you will survive among the nations to which the LORD will drive you.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 [신명기]

28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There you will worship man-made gods of wood and stone, which cannot see or hear or eat or smell.

29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But if from there you seek the LORD your God, you will find him if you seek him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30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When you are in distress and all these things have happened to you, then in later days you will return to the LORD your God and obey him.

31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For the LORD your God is a merciful God; he will not abandon or destroy you or forget the covenant with your ancestors, which he confirmed to them by oath.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가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15

토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신 4:32-40

32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Ask now about the former days, long before your time, from the day God created human beings on the earth; ask from one end of the heavens to the other. Has anything so great as this ever happened, or has anything like it ever been heard of?

33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Has any other people heard the voice of God speaking out of fire, as you have, and lived?

34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 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Has any god ever tried to take for himself one nation out of another nation, by testings, by signs and wonders, by war, by a mighty hand and an outstretched arm, or by great and awesome deeds, like all the things the LORD your God did for you in Egypt before your very eyes?

35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You were shown these things so that you might know that the LORD is God; besides him there is no other.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 [신명기]

36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네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네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From heaven he made you hear his voice to discipline you. On earth he showed you his great fire, and you heard his words from out of the fire.

37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Because he loved your ancestors and chose their descendants after them, he brought you out of Egypt by his Presence and his great strength,

38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to drive out before you nations greater and stronger than you and to bring you into their land to give it to you for your inheritance, as it is today.

39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Acknowledge and take to heart this day that the LORD is God in heaven above and on the earth below. There is no other.

40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 없이 오래 살리라

Keep his decrees and commands, which I am giving you today, so that it may go well with you and your children after you and that you may live long in the land the LORD your God gives you for all time.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가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16

주일

감사하는 습관을 키우십시오

시 136:1-26

- 1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His love endures forever.

- 2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Give thanks to the God of gods. His love endures forever.

- 3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Give thanks to the Lord of lords: His love endures forever.

- 4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to him who alone does great wonders, His love endures forever.

- 5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who by his understanding made the heavens, His love endures forever.

- 6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who spread out the earth upon the waters, His love endures forever.

- 7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who made the great lights— His love endures forever.

- 8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the sun to govern the day, His love endures forever.

- 9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the moon and stars to govern the night; His love endures forever.

- 10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to him who struck down the firstborn of Egypt His love endures forever.

- 11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and brought Israel out from among them His love endures forever.

- 12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with a mighty hand and outstretched arm; His love endures forever.

- 13 흥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이 영원함이로다
to him who divided the Red Sea asunder His love
endures forever.
- 14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
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and brought Israel through the midst of it, His love
endures forever.
- 15 바로와 그의 군대를 흥해에 엎드러뜨리신 이
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but swept Pharaoh and his army into the Red Sea;
His love endures forever.
- 16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to him who led his people through the wilderness;
His love endures forever.
- 17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
심이 영원함이로다
to him who struck down great kings, His love
endures forever.
- 18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and killed mighty kings— His love endures forever.
- 19 아모리인의 왕 시훈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
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Sihon king of the Amorites His love endures forever.

- 20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
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and Og king of Bashan— His love endures forever.
- 21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and gave their land as an inheritance, His love
endures forever.
- 22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
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an inheritance to his servant Israel. His love endures
forever.
- 23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
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He remembered us in our low estate His love
endures forever.
- 24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
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and freed us from our enemies. His love endures
forever.
- 25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
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He gives food to every creature. His love endures
forever.
- 26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Give thanks to the God of heaven. His love endures
forever.

17

월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가라

시 100:1-5

- 1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Shout for joy to the LORD, all the earth.

- 2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Worship the LORD with gladness; come before him
with joyful songs.

- 3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
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
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Know that the LORD is God. It is he who made us,
and we are his; we are his people, the sheep of his
pasture.

- 4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nter his gates with thanksgiving and his courts with
praise; give thanks to him and praise his name.

- 5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
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For the LORD is good and his love endures forever;
his faithfulness continues through all generations.



도피성, 은혜의 경계

신 4:41-49

41 그 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듣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Then Moses set aside three cities east of the Jordan,

42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 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 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to which anyone who had killed a person could flee if they had unintentionally killed a neighbor without malice aforethought. They could flee into one of these cities and save their life.

43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로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 라 마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The cities were these: Bezer in the wilderness plateau, for the Reubenites; Ramoth in Gilead, for the Gadites; and Golan in Bashan, for the Manassites.

44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This is the law Moses set before the Israelites.

45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These are the stipulations, decrees and laws Moses gave them when they came out of Egypt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 [신명기]

46 요단 동쪽 베브을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흔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and were in the valley near Beth Peor east of the Jordan, in the land of Sihon king of the Amorites, who reigned in Heshbon and was defeated by Moses and the Israelites as they came out of Egypt.

47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듣는 쪽에 살았으며

They took possession of his land and the land of Og king of Bashan, the two Amorite kings east of the Jordan.

48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 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This land extended from Aroer on the rim of the Arnon Gorge to Mount Sirion (that is, Hermon),

49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and included all the Arabah east of the Jordan, as far as the Dead Sea, below the slopes of Pisgah.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19

수

십계명, 언약의 시작

신 5:1-11

1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Moses summoned all Israel and said: Hear, Israel, the decrees and laws I declare in your hearing today. Learn them and be sure to follow them.

2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 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The LORD our God made a covenant with us at Horeb.

3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 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It was not with our ancestors that the LORD made this covenant, but with us, with all of us who are alive here today.

4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The LORD spoke to you face to face out of the fire on the mountain.

5 그 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At that time I stood between the LORD and you to declare to you the word of the LORD, because you were afraid of the fire and did not go up the mountain.) And he said:

6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I am the LORD your God, who brought you out of Egypt, out of the land of slavery.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 [신명기]

7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8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밑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You shall not make for yourself an image in the form of anything in heaven above or on the earth beneath or in the waters below.

9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You shall not bow down to them or worship them; for I, the LORD your God, am a jealous God, punishing the children for the sin of the parents to the third and fourth generation of those who hate me,

10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풀느니라

but showing love to a thousand generations of those who love me and keep my commandments.

11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You shall not misuse the name of the LORD your God, for the LORD will not hold anyone guiltless who misuses his name.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가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0

목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신 5:12-15

12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Observe the Sabbath day by keeping it holy, as the LORD your God has commanded you.

13 옛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Six days you shall labor and do all your work,

14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but the seventh day is a sabbath to the LORD your God. On it you shall not do any work, neither you, nor your son or daughter, nor your male or female servant, nor your ox, your donkey or any of your animals, nor any foreigner residing in your towns, so that your male and female servants may rest, as you do.

15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Remember that you were slaves in Egypt and that the LORD your God brought you out of there with a mighty hand and an outstretched arm. Therefore the LORD your God has commanded you to observe the Sabbath day.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가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1

금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신 5:16-21

16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 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as the LORD your God has commanded you, so that you may live long and that it may go well with you in the land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17 살인하지 말지니라
"You shall not murder.

18 간음하지 말지니라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19 도둑질 하지 말지니라
"You shall not steal.

20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You shall not give false testimony against your neighbor.

21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네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You shall not covet your neighbor's wife. You shall not set your desire on your neighbor's house or land, his male or female servant, his ox or donkey, or anything that belongs to your neighbor."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가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신 5:22-33

22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 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23 산이 불에 타며 침침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아와

24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의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25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이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26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발함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 [신명기]

새로운QT

27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28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네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29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30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31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네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32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33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가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3

주일

삼손과 딤나의 여자

삿 14:1-20

- 1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Samson went down to Timnah and saw there a young Philistine woman.

- 2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When he returned, he said to his father and mother, "I have seen a Philistine woman in Timnah; now get her for me as my wife."

- 3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His father and mother replied, "Isn't there an acceptable woman among your relatives or among all our people? Must you go to the uncircumcised Philistines to get a wife?" But Samson said to his father, "Get her for me. She's the right one for me."

- 4 그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핥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His parents did not know that this was from the LORD, who was seeking an occasion to confront the Philistines; for at that time they were ruling over Israel.)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 [신명기]

- 5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딤나에 내려가 딤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Samson went down to Timnah together with his father and mother. As they approached the vineyards of Timnah, suddenly a young lion came roaring toward him.

- 6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The Spirit of the LORD came powerfully upon him so that he tore the lion apart with his bare hands as he might have torn a young goat. But he told neither his father nor his mother what he had done.

- 7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Then he went down and talked with the woman, and he liked her.

- 8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Some time later, when he went back to marry her, he turned aside to look at the lion's carcass, and in it he saw a swarm of bees and some honey.

9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He scooped out the honey with his hands and ate as he went along. When he rejoined his parents, he gave them some, and they too ate it. But he did not tell them that he had taken the honey from the lion's carcass.

10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Now his father went down to see the woman. And there Samson held a feast, as was customary for young men.

11 무리가 삼손을 보고 삼십 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When the people saw him, they chose thirty men to be his companions.

12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레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삼십 벌과 겉옷 삼십 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Let me tell you a riddle,” Samson said to them. “If you can give me the answer within the seven days of the feast, I will give you thirty linen garments and thirty sets of clothes.

13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삼십 벌과 겉옷 삼십 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If you can't tell me the answer, you must give me thirty linen garments and thirty sets of clothes.” “Tell us your riddle,” they said. “Let's hear it.”

14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He replied, “Out of the eater, something to eat; out of the strong, something sweet.” For three days they could not give the answer.

15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 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니 하니

On the fourth day, they said to Samson's wife, “Coax your husband into explaining the riddle for us, or we will burn you and your father's household to death. Did you invite us here to steal our property?”

16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뜻을 내게 알려 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 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Then Samson's wife threw herself on him, sobbing, "You hate me! You don't really love me. You've given my people a riddle, but you haven't told me the answer." "I haven't even explained it to my father or mother," he replied, "so why should I explain it to you?"

17 칠 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 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 주었더라

She cried the whole seven days of the feast. So on the seventh day he finally told her, because she continued to press him. She in turn explained the riddle to her people.

18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Before sunset on the seventh day the men of the town said to him, "What is sweeter than honey? What is stronger than a lion?" Samson said to them, "If you had not plowed with my heifer, you would not have solved my riddle."

19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 곳 사람 삼십명을 쳐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Then the Spirit of the LORD came powerfully upon him. He went down to Ashkelon, struck down thirty of their men, stripped them of everything and gave their clothes to those who had explained the riddle. Burning with anger, he returned to his father's home.

20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And Samson's wife was given to one of his companions who had attended him at the feast.

24

월

하나님의 설리

창 50:15-21

15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When Joseph's brothers saw that their father was dead, they said, "What if Joseph holds a grudge against us and pays us back for all the wrongs we did to him?"

16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So they sent word to Joseph, saying, "Your father left these instructions before he died:

17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This is what you are to say to Joseph: I ask you to forgive your brothers the sins and the wrongs they committed in treating you so badly.' Now please forgive the sins of the servants of the God of your father." When their message came to him, Joseph wept.

18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His brothers then came and threw themselves down before him. "We are your slaves," they said.

19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But Joseph said to them, "Don't be afraid. Am I in the place of God?

20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You intended to harm me, but God intended it for good to accomplish what is now being done, the saving of many lives.

21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So then, don't be afraid. I will provide for you and your children." And he reassured them and spoke kindly to them.

25

화

쉐마 이스라엘

신 6:1-9

- 1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These are the commands, decrees and laws the LORD your God directed me to teach you to observe in the land that you are crossing the Jordan to possess,

- 2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

이며 또 네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so that you, you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after them may fear the LORD your God as long as you live by keeping all his decrees and commands that I give you, and so that you may enjoy long life.

- 3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Hear, Israel, and be careful to obey so that it may go well with you and that you may increase greatly in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just as the LORD, the God of your ancestors, promised you.

- 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one.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 [신명기]

- 5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 6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These commandments that I give you today are to be on your hearts.

- 7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 이며

Impress them on your children. Talk about them when you sit at home and when you walk along the road, when you lie down and when you get up.

- 8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Tie them as symbols on your hands and bind them on your foreheads.

- 9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Write them on the doorframes of your houses and on your gates.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가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6

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

신 6:10-19

10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When the LORD your God brings you into the land he swore to your fathers, to Abraham, Isaac and Jacob, to give you—a land with large, flourishing cities you did not build,

11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houses filled with all kinds of good things you did not provide, wells you did not dig, and vineyards and olive groves you did not plant—then when you eat and are satisfied,

12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be careful that you do not forget the LORD, who brought you out of Egypt, out of the land of slavery.

13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Fear the LORD your God, serve him only and take our oaths in his name.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 [신명기]

14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Do not follow other gods, the gods of the peoples around you;

15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멀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for the LORD your God, who is among you, is a jealous God and his anger will burn against you, and he will destroy you from the face of the land.

16 너희가 맷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Do not put the LORD your God to the test as you did at Massah.

17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Be sure to keep the commands of the LORD your God and the stipulations and decrees he has given you.

18-19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Do what is right and good in the LORD's sight, so that it may go well with you and you may go in and take over the good land the LORD promised on oath to your ancestors, thrusting out all your enemies before you, as the LORD said.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가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7

목

부모에게 배우는 교훈

신 6:20-25

20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물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In the future, when your son asks you, "What is the meaning of the stipulations, decrees and laws the LORD our God has commanded you?"

21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tell him: "We were slaves of Pharaoh in Egypt, but the LORD brought us out of Egypt with a mighty hand."

22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Before our eyes the LORD sent signs and wonders—great and terrible—on Egypt and Pharaoh and his whole household.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 [신명기]

23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But he brought us out from there to bring us in and give us the land he promised on oath to our ancestors.

24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The LORD commanded us to obey all these decrees and to fear the LORD our God, so that we might always prosper and be kept alive, as is the case today.

25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And if we are careful to obey all this law before the LORD our God, as he has commanded us, that will be our righteousness."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가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8

금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신 하나님

신 7:1-11

- 1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 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 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 3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 4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 5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인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 [신명기]

- 6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 7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리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 8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 9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 10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 11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가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9

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면

신 7:12-16

12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If you pay attention to these laws and are careful to follow them, then the LORD your God will keep his covenant of love with you, as he swore to your ancestors.

13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He will love you and bless you and increase your numbers. He will bless the fruit of your womb, the crops of your land—your grain, new wine and olive oil—the calves of your herds and the lambs of your flocks in the land he swore to your ancestors to give you.

14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의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You will be blessed more than any other people; none of your men or women will be childless, nor will any of your livestock be without young.

15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The LORD will keep you free from every disease. He will not inflict on you the horrible diseases you knew in Egypt, but he will inflict them on all who hate you.

16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 무가 되리라

You must destroy all the peoples the LORD your God gives over to you. Do not look on them with pity and do not serve their gods, for that will be a snare to you.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가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30

주일

삼손이 블레셋을 치다

삿 15:1-20

1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 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Later on, at the time of wheat harvest, Samson took a young goat and went to visit his wife. He said, "I'm going to my wife's room." But her father would not let him go in.

2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네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나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I was so sure you hated her," he said, "that I gave her to your companion. Isn't her younger sister more attractive? Take her instead."

3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라 하고

Samson said to them, "This time I have a right to get even with the Philistines; I will really harm them."

4 삼손이 가서 여우 삼백 마리를 불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매고 화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화를 달고

So he went out and caught three hundred foxes and tied them tail to tail in pairs. He then fastened a torch to every pair of tails,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 [신명기]

5 화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 들여서 곡식 단과 아직 베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lit the torches and let the foxes loose in the standing grain of the Philistines. He burned up the shocks and standing grain, together with the vineyards and olive groves.

6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딤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When the Philistines asked, "Who did this?" they were told, "Samson, the Timnite's son-in-law, because his wife was given to his companion." So the Philistines went up and burned her and her father to death.

7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고

Samson said to them, "Since you've acted like this, I swear that I won't stop until I get my revenge on you."

8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He attacked them viciously and slaughtered many of them. Then he went down and stayed in a cave in the rock of Etam.

9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에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The Philistines went up and camped in Judah, spreading out near Lehi.

10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The people of Judah asked, "Why have you come to fight us?" "We have come to take Samson prisoner," they answered, "to do to him as he did to us."

11 유다 사람 삼천 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Then three thousand men from Judah went down to the cave in the rock of Etam and said to Samson, "Don't you realize that the Philistines are rulers over us? What have you done to us?" He answered, "I merely did to them what they did to me."

12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They said to him, "We've come to tie you up and hand you over to the Philistines." Samson said, "Swear to me that you won't kill me yourselves."

13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 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Agreed," they answered. "We will only tie you up and hand you over to them. We will not kill you." So they bound him with two new ropes and led him up from the rock.

14 삼손이 레히에 이르매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As he approached Lehi, the Philistines came toward him shouting. The Spirit of the LORD came powerfully upon him. The ropes on his arms became like charred flax, and the bindings dropped from his hands.

15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 명을 죽이고

Finding a fresh jawbone of a donkey, he grabbed it and struck down a thousand men.

16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음이여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 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Then Samson said, "With a donkey's jawbone I have made donkeys of them. With a donkey's jawbone I have killed a thousand men."

17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 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When he finished speaking, he threw away the jawbone; and the place was called Ramath Lehi.

18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Because he was very thirsty, he cried out to the LORD, "You have given your servant this great victory. Must I now die of thirst and fall into the hands of the uncircumcised?"

19 하나님의 레히에서 한 우뚝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려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Then God opened up the hollow place in Lehi, and water came out of it. When Samson drank, his strength returned and he revived. So the spring was called En Hakkore, and it is still there in Lehi.

20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십 년 동안 지냈더라

Samson led Israel for twenty years in the days of the Philistines.

2025.
11

순예배 가이드

1. 11월 첫째 주(11/2-8)

[전도축제] 천국이 있습니다 (계 21:1-8)

2. 11월 둘째 주(11/9-15)

[추수감사절] 감사하는 습관을 키우십시오 (시 136:1-26)

3. 11월 셋째 주(11/16-22)

삼손과 딤나의 여자 (삿 14:1-20)

4. 11월 넷째 주(11/23-29)

삼손이 블레셋을 치다 (삿 15:1-20)

5. 12월 첫째 주(11/30-12/6)

삼손과 들릴라 (삿 16:1-22)

01



01

[순례배 가이드] 11월 첫째 주 (11/2-8)
천국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1-8

지난주 본문 요약 | 삼손이 태어나다 (삿 13:1-25)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손에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마노아의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를 통해 나실인인 삼손을 낳게 하셨습니다.

지난주 설교 나눔

관찰/해석

- 1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 2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5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관찰/해석

* **새 하늘과 새 땅(1절):** 새로운 세상, 죄로 오염된 기존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새롭게 창조될 온전한 세상,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가 살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세상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 **보좌(3절):** 권력자, 귀빈, 통치자가 있는 권위와 위엄의 자리입니다. 주로 '왕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며, 창조주요.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마지막 날 온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통치 자리를 말합니다.

관찰/해석

6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8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 **알파와 오메가(6절):**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A)와 끝글자(O)를 나타낸 말로 '처음과 나중', '완전함', '충만함', '전 존재' 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자신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신적인 명칭으로, 창조자요, 완성자이시며, 유일무이하고 절대적인 존재임을 뜻하는 말입니다.

* **둘째 사망(8절):**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간이 겪는 육신의 죽음(첫째 사망)에 비견되는 말로, 세상 종말에 하나님의 최후 심판 때 이루어질 영원한 멸망을 가리킵니다.

적용

ME

OTHER

기도제목 우리순 기도제목

이름	기도제목	응답

중보 기도제목

1. 최후 심판의 날이 곧 다가옴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2.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그 때를 기대하며, 지금 주어진 이 땅에서 복음의 능력을 불들고 살게 하옵소서.
3.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인들 중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금주의 암송구절 [계 21: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02

[순례배 가이드] 11월 둘째 주(11/9-15)

감사하는 습관을 키우십시오

시편 136:1-26

지난주 본문 요약 | 천국이 있습니다 (계 21:1-8)

사도 요한이 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의 내용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과 보좌에 앉으신 이의 큰 음성을 통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나눔

관찰/해석

- 1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 2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 3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 4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 5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 인자 (1절):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불변적인 사랑'이라는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 '헤세드'를 번역한 단어로, 언약을 지키기 위해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이나 그 분의 은총, 호의, 사랑, 긍휼, 신실함, 거룩한 열심 등을 나타낸 말입니다.

6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7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8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9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0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1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2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3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4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5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관찰/해석

관찰/해석

- 16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 17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 18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 19 아모리인의 왕 시흔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 20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 21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 22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 23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 24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 25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 26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적용

ME

OTHER

기도제목 우리순 기도제목

이름	기도제목	응답

중보 기도제목

1.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일들로 인하여 감사를 회복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2. 우리 입술에 원망과 불평보다 감사의 언어가 날마다 흘러나와 습관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3. 절기의 순간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이 감사로 가득할 수 있도록, 눈과 귀와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금주의 암송구절 [시 136:1]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03

[순례배 가이드] 11월 셋째 주(11/16-22)

삼손과 딤나의 여자

사사기 14:1-20

지난주 본문 요약 | 감사하는 습관을 키우십시오 (시 136:1-26)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와 구원의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으로 인하여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나눔

관찰/해석

-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 그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딤나에 내려가 딤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별 떼와 꿀이 있는지라
-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 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 무리가 삼손을 보고 삼십 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례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삼십 벌과 겉옷 삼십 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삼십 벌과 겉옷 삼십 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관찰/해석

* 주검(8절): 시체를 뜻하며, 죽은 짐승의 주검에 접촉한 자나 접촉된 물건은 모두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나실인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찰/해석

- 14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 15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끼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 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 16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 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 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 17 칠 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 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 주었더라
- 18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 19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 곳 사람 삼십 명을 쳐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 20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적용

ME

OTHER

기도제목 우리순 기도제목

이름	기도제목	응답

중보 기도제목

1. 인간적인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2.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3. 인간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님의 뜻을 이뤄주시옵소서.

금주의 암송구절 [삿 14:6]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04

[순례배 가이드] 11월 넷째 주(11/23-29)

삼손이 블레셋을 치다

사사기 15:1-20

지난주 본문 요약 | 삼손과 딤나의 여자 (삿 14:1-20)

삼손은 딤나의 한 여인을 보고 아내로 삼았고, 딤나에서 베운 잔치에서 포도원에서 만난 사자와 관련된 수수께끼를 내었으나 맞추지 못했는데, 아내의 간청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맞추게 됩니다.

지난주 설교 나눔

관찰/해석

- 얼마 후 밀 거들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 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네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 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나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 삼손이 가서 여우 삼백 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매고 혜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혜를 달고
- 혜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 들여서 곡식 단과 아직 베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관찰/해석

-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딤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에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 유다 사람 삼천 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 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관찰/해석

- 14 삼손이 레하에 이르매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의 뱃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 15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 명을 죽이고
- 16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음이여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 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 17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 곳을 라맛 레하라 이름하였더라
- 18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 19 하나님의 레하에서 한 우뚝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하에 있더라
- 20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자로 이십 년 동안 지냈더라

* **라맛 레하(17절):** '턱뼈의 언덕'이라는 뜻으로, 소라와 담나 인근에 위치한 언덕으로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천명을 죽인 곳입니다.

* **엔학고레(19절):** '부르짖는 자의 우물, 부르심 받은 자의 샘'이라는 뜻으로,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은 것에 대한 응답으로 생긴 우물을 기념한 곳입니다.

적용

ME

OTHER

기도제목 우리순 기도제목

이름	기도제목	응답

중보 기도제목

1.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2. 어떠한 도구나, 환경이 아닌, 하나님께 불들릴 때에 승리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3. 세상 속에서 갈급한 우리의 영을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다시 소생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불들어 주옵소서.

금주의 암송구절 [삿 15:19] 하나님의 레하에서 한 우뚝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하에 있더라

01

[순례배 가이드] 12월 첫째 주(11/30-12/6)

삼손과 둘릴라

삿 16:1-22

지난주 본문 요약 | 삼손이 블레셋을 치다 (삿 15:1-20)

삼손이 아내를 찾으러 갔을때, 잠인과의 갈등으로 여우 300마리의 꼬리에 햇불을 매어 블레셋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을 불태워 버리게 되고, 이에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삼손은 나귀 턱뼈로 블레셋인 천명을 죽이고, 목이 말라 하나님께 부르짖었을때에, 하나님은 샘물을 터뜨려주셨습니다.

지난주 설교 나눔

관찰/해석

- 1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 2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 3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 4 이 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의 둘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 **둘릴라(4절):** '요염하다, 약하다, 생각나게 하다'는 뜻으로, 블레셋 땅 소렉 골짜기에 살던 이방 여인이며, 은 1,100개를 받는 조건으로 삼손을 유혹하여 힘의 비밀을 캐내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관찰/해석

- 5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 가각각은 천백 개씩을 네게 주리라 하니
- 6 둘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 7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 8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 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 9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실을 끊음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 10 둘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 11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관찰/해석

12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의 줄 끊기를 실을 끊음 같이 하였고 그 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13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 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베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14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베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15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16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 번뇌하여(16절): 마음이 시달려 괴로움을 뜻하며, 물결이 요동하듯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여 괴롭고 우울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관찰/해석

17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느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18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 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 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19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20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21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 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22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관찰/해석

적용

ME

OTHER

묵상노트

기도제목 우리순 기도제목

이름	기도제목	응답

중보 기도제목

1. 하나님과 맺은 거룩한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2.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도록 언제나 거룩을 지켜 행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3.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불들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금주의 암송구절 [삿 16:22]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개인기도제목 - 1주차



개인기도제목 - 2주차



개인기도제목 - 3주차



개인기도제목 - 4주차

2025.
11

성지순례 간증

02

1. 김종임 성도 (강북공동체)
2. 김은경D 청년 (청년2부)
3. 이경애A 성도 (우면공동체)
4. 이아론 목사

새로운교회 터르키예/그리스 성지순례

Saeroun
church

사도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2025. 9. 29(월) ~ 10. 7(목) 8박 9일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죽는 날까지 닮아가고 싶습니다

김종임 성도 (강북공동체)



양육 프로그램과 사역에 언제나 미지근한 저와 달리, 본인의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불쑥불쑥 양육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남편은 몇 단계 월반에 가까운 수준의 '예이비' 과정을 완주하

였고, 서프라이즈 선물로 성지순례 신청 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양육과 사역의 훈장이라, 저와는 거리가 멀다 생각했던 성지순례를 가게 되어 1년을 기대와 흥분 속에 기다렸습니다. 이런 기대와 부담감과 함께, 사도 바울이 걷고 또 걸었던 그 땅을 밟아본다는 흥분 속에 사도 행전을 여러 번 읽고, 여러 강해 설교를 들으면서, 점점 더 사도 바울에 대한 사랑과 존경, 그리고 인간적인 연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순례를 위한 무장을 마치고 떠났지만, 전교 꼴등이 전교 1등만 모아 놓은 대회에 행정 착오로 잘못 끼게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함께 떠난 순례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믿음과 사랑, 헌신, 순종으로 가득 충전된 분들이었습니다. DS홀 시절부터 새로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해 무려 16년을 함께 했음에도 이렇게 무쇠덩어리같이 냉담한 믿음으로 연명하고 있는 저를 돌아보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했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비행기, 페리, 버스 등 온갖 교통수단을 다 이용해도 힘들었던 그 멀고 긴 여정을 알પ하디 알프한 샌들 하나로 걸어 다녔던 바울.. 특히, 밤늦게 버스를 타고 베레아로 향하던 때에 창밖을

바라보니, 지금도 거의 불빛 하나 없이 깜깜한 데, 바울은 어떻게 매일 이런 어둠 속에 걷고 또 걸어서 사역을 했을까, 지치고 두려웠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의 동상을 보았을 때,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을 안아드렸습니다. '연약한 몸으로, 그런 모진 펉박과 고통과 박해를 당하면서, 이역만리 대한민국의 저한테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박해했던 과거를 회개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바쳐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 성지순례의 모든 시간이 가슴 벅차고 감사했지만, 그중 주일날 루디아 기념교회의 세례터에서 드렸던 예배는 지금 생각해도 울컥한 경험이었습니다. 비 온 뒤에 쌀쌀한 날씨였지만, 모두 세례터에 둘러앉아 드렸던 찬양의 뜨거움. 사도행전 16:11-15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목적이 이끄는 삶/경계를 넘어서는 삶/내 생각의 틀을 깨고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는 삶에 대한 목사님의 설교.. 인생의 후반전은 남편과 함께 새로운 교회의 또 한 쌍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커플이 되어,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는 거룩하고 축복된 삶을 살리라, 지난 16년간처럼 사각지대로 숨어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리,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앞장서서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리라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저의 이 결심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 매일이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이 넘치기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의 능력

김은경D 청년 (청년2부)



성지순례를 가기 전, 저는 오랫동안 이어진 직장의 문제로 인해 직장에 대한 소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성지순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의 문제와 그 여파로 이어진 많은 문제들 때문이었는지, 성지순례 날짜가 다가올수록 기대하는 마음보다 부담스러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꼭 있어야 할 곳에 저를 부르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기대하게 하시고 은혜받을 만한 마음으로 앞서 가시며 준비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성지순례에 나섰습니다.

성지순례를 가기 전, 사전과제로 주어졌던 [바울로부터] 영상을 보다가 한 문장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 어쩌면 새로울 것이 없는 그 한 문장이 바울 사도의 삶을 관통해 저의 상황 속에서 제 영혼으로 들어오니 완전히 새로운 은혜와 감동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사도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버스와 페리, 비행기 모든 교통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동해도 고단한 성지순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환경 속에서 들떴던 마음들이 가이드님과 담임목사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섰던 그 당시 그 성경 속으로 들어온 듯 무겁게 가라앉기도 하였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한 사도 바울의 열정적인 사역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펉박 속

에서도 하나님을 담대히 전해야 했던 고단한 마음들, 아픈 몸을 이끌고 끝없는 길을 걷고 또 걸으며 추위와 굶주림, 강도의 위협 속에서 잠을 청했을 지친 육신이, 더 이상 성경 속 머나먼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피부에 닿은 믿음의 선배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떠한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바울의 극한의 사역과 열매들을 보면서 그의 순종에는 어떻게 이렇게 능력이 있을 수 있었을까 하며 저의 삶의 문제와 함께 견주며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단 한 절에 등장하는 아볼로니아에 갔을 때 담임목사님께서는 "사도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기쁨을 던지는 사람이었다. 화려한 로마장군들이 지나갈 때랑 다르게 초라한 그가 지나갔던 땅이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지만, 그가 지나가기만 하면 그 땅에 엄청난 파워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교회는 사람이다. 사람이 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성경 속에서는 단 한 번 등장하는 곳이지만, 사도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제자들이 생겨났다. 비록 초라한 바울이 지나간 땅이지만, 그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지진을 일으키는 인물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 안에서 직장과 저를 하나님께 간절히 의탁드리는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 내가 걷는 순종의 걸음이 비록 이 땅에서는 더디 보이고, 작아 보일지도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며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늘을 진동하며 주의 일에 동참하는 큰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의 삶처럼 더딘 고난의 자갈밭도 기쁨의 활주로가 됨을 믿습니다.

제 삶에 찾아온 기적의 순례길

이경애A 성도 (우연공동체)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던 성지순례가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이자 제 삶에 찾아온 가장 큰 기적의었음을 고백합니다.

교회에서 성지순례 다녀온 영상이 나올 때마다 ‘나는 언제쯤 저 길을 걸어 볼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나도 꼭 갈 수 있을 거야’라는 희망을 품고 시댁의 우상 숭배인 제사가 사라지고 순례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정리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마침내 결혼한 지 17년 만에 그렇게나 중요하게 여겨던 시댁의 제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기적처럼 사라지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말, ‘예수 이름의 비밀’이라는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 성지순례를 신청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한다”는 말처럼,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예이비’ 조장님의 올려주신 신청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터져 나왔고, 몇 달이나 남은 순례를 생각하며 하루하루가 설렜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년 추석 연휴에 교회 성지순례 가고 싶다고.” 하지만 돌아온 건 “안 돼! 종교 생활에 너무 깊

이 들어가지 말랬잖아!”라는 무서운 표정과 단호한 말투로 반대했습니다. 일단 저는 후퇴하기로 했지만, 성지순례는 반드시 갈 수 있을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좌절하지 않고 콧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초, 제가 ‘망막색소변성증’이라는 진행성 희귀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단서를 들고 집에 돌아와 아이들 얼굴을 보니,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활각 쏟아졌어요. 병 자체보다 이게 유전병이라는 사실에 아이들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복받쳐 올라왔고, ‘면 미래에 딸아이들이 결혼할 때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때 도와주지 못하면 어떡하지?’, ‘아이들에게 짐이 되는 엄마가 될까 봐’… 수많은 걱정과 미안함 속에 울고 있을 때, 제 마음속에 너무나 선명하고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내가 한다. 맡겨라. 결코 너의 눈은 멀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는 찬양이 가슴을 울리며 차츰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후 아이들을 데리고 진료를 받았는데, 감사하게도 아이들의 망막은 모두 정상이라는 기적 같은 결과가 나왔고, 심지어 제가 가진

유전 세포가 자녀에게 갈 확률은 겨우 1% 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 질병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이 선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하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성지순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눈 시야가 더 좁아지기 전에 이번 성지순례 꼭 가고 싶다”며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여전히 돌아오는 대답은 “안 돼”였습니다. 기도로 마음을 다스리며 몇 주 지난 후, 다시 남편에게 “친구랑 여행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고민하더니 “눈 더 나빠지기 전에 구경하고 오라”며 친구와의 여행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기적처럼 성지순례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밖 강가에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며 성경 속 여인들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주님의 십자가 걸을 끝까지 지키며 눈물을 흘렸던 여인들, 그 어떤 제자들보다 먼저 주님의 부활을 증언했던 여인들, 그리고 복음의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여집사 뵈뵈의 헌신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특히, 예배를 드리고 있던 세례터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의 씨앗을 처음 들었던 루디아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루디아가 말씀을 듣는 즉시 마음 문이 열리고 주님을 영접했던 것처럼, 저 또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저의 가정도 루디아의 가정처럼 모두가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그 길을 묵묵히 따르며 순종하며 복음이 역사하는 통로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 남편과 시부모님, 친정 식구들에 대한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분명히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미신과 우상 숭배가 심한 가정에서 자란 남편을 만나게 하셨는지, “예수쟁이 며느리는 필요 없다”라고 하셨던 시부모님마저도 모두가 귀한 전도 대상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성지순례는 저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제게 맡겨 주신 귀한 사명을 더욱 힘껏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자리였습니다. 비록 쉽지 않은 발걸음이었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저의 이웃과 가정이 모두 주님께 돌아오는 그날을 소망하며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조장님과 조원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공동체 순장님, 제 눈이 되어 주고, 발이 되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성지순례

이아론 목사



지난 성지순례는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꿈과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걸음과 눈물과 기도와 복음을 위해 생명까지 아끼지 않았던 현장을 직접 발로 밟아보고, 눈으로 보고, 묵상하면서 정말 많은 깨달음과 도전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모든 장소들이 은혜였지만, 첫 번째 행선지였던 사도 빌립의 순교지 히에라볼리에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던 시간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계산적이었고, 자신의 유익을 우선순위에 두었던 빌립이었지만, 복음으로 변화되고, 아시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그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를 먼저 구하는 자로 서길 결단하며 성도님들과 함께 둘러어서 올려드린 기도의 시간을 통해, 저 역시도 삶의 우선순위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에베소 유적지들의 거대하고 찬란했던 헬레니즘 건축물들(원형극장, 아고라, 셀수스 도서관, 마리아 기념교회 등)을 눈으로 보고, 그 땅을 걸으면서 과거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과,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의 마음을 묵상할 수 있었고, 특별히 당대 3대 도서관 중 하나였던, 셀수스 도서관이 두란노서원이었다면, 바로 앞에 사창가가 들어서 있는 곳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사

람들이 모두 쉬는 시간을 활용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양육하였던 복음의 열정이 어찌한지를 새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목회자로서 바울의 열정을 다시 한번 본받아야 함을 느꼈고, 한 흥 목사님께서 가장 바쁜 온누리교회 부목사 시기에도 한동대 강의를 다니시고, 월요일에도 바이블 스쿨을 담당하여 진행하시는 와중에도, 책을 집필하시고, 말씀 사역에 게으르지 않으셨고, 항상 성도님들을 위해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으셨던 열정이 생각났습니다. 그런 담임목사님과 함께 동역을 이루며 가장 가까이서 배울 수 있다는 사실에 새삼 감사했고, 사도 바울의 열정과 실력을 가지신 목사님 곁에서 하나님도 더 배우고,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그리스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새벽 늦은 시간까지 배를 기다려야 하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성숙한 성도님들께서 함께 모여 깊은 나눔과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는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교회 성도님들의 성숙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청년들도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선배 크리스천들의 인생을 듣고, 많은 깨달음과 배움의 시간이 되었다고 고백해 주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렵다 느끼는 시간까지도 역사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보며, 성지순례에 주시는 은혜가 참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첫날 많은 비가 내렸지만, 감사하게도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고, 파르테논 신전에 올라가서 관람할 시기에는 잠시 비

가 소강상태로 접어들어서, 감사하게도 관람하는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메테오라 수도원을 투어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대 수도사들이 이처럼 높은 기암절벽 위까지 오르내리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켰고, 믿음을 표현한 성상들과 성화들을 보면서, 저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과거 수도사들은 거룩을 지켜 행하고자 수도원으로 들어갔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거룩을 지켜 행해야 하는데, 과연 나는 내 믿음을 얼마나 흘려보내며, 고백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 모든 걸 은혜로 채우려 하진 않았는가? 스스로 끊임없이 질문하며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었습니다.

빌립보 유적지를 돌아볼 때는, 참 느끼는 것이 많았습니다. 당시 그리스의 문화와 역사,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여성의 인권이 얼마나 바닥이었는지.. 심지어 공중 화장실조차도 없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성들을 통하여 일 하셨고, 루디아라는 한 여성 CEO를 통해 바울과 협력하여 이루신 복음의 역사를 묵상하며 큰 은혜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광장과 감옥터를 바라보면서, 성경 속에서 그저 글로 읽으면서 묵상했던 말씀을, 직접 눈으로 보고, 구조와 배치와 공간을 살펴보면서, 성경의 행간 속에 감추어진 정황들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었고, 감옥에서도 천상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옥문이 열리고 간수와 그

의 가정을 구원한 사건이 얼마나 파격적인 일이었는지를 새삼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성지순례 내내 사도 바울을 움직인 힘이 무엇이었을까? 묵상했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비행기로, 유람선으로, 버스로 이동해도 힘겨웠던 그 길을.. 어떻게 맨몸으로, 두 발로, 상황과 환경도 정말 열악했을 것이고, 하루하루의 일정이 목숨을 건 도전이며, 결단이었을 텐데.. 무엇이 그를 그토록 절박하게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했을까?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계를 넘는 일이, 요즘 시대에야 글로벌 한 시대적 환경과 문화로 인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당시에는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조차도 파격적이었고, 아시아로 계획된 선교 일정을.. 단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마계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돌아켜 유럽 땅을 밟은 것조차도.. 바울은 오로지 복음에 사로잡혀있는 사람이었기에..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데, 모든 인간적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에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에게도 바울과 같은 복음의 열정이 다시금 회복되길.. 복음의 능력으로만 살아가길.. 경계를 넘어.. ‘복음’이라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온전히 순종하길.. 기도하며, 묵상하며, 제 안의 많은 부분들이 무너지고, 다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2025.
11

예수이름의비밀 간증

03

1. 김덕준 성도 (W서초공동체)
2. 송주현 성도 (W강남공동체)
3. 고수정B 성도 (E서초공동체)
4. 조현진 성도 (우면공동체)



“예수님”을 부를 때 제 마음이 잔잔하게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김덕준 성도 (W서초공동체)



크리스천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목자로 알고 지내오며 저는 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모범적인 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염소였습니다. 제가 쳐 놓은 작은 울타리 안에서 눈을 가린 채 종교인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예이비 과정에 지원할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마음속에서 하자, 하지 말자, 하자, 하지 말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틀은 하자가 승리했고 이틀은 하지 말자가 승리했습니다. 또 다음날은 하자, 또 다음날은 하지 말자 계속되는 일진 일퇴의 공방전 끝에 그래, 해보자, 정말 엄청난지 확인해 보자라는 마음을 먹고 그 비밀의 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교재를 사서 보니 하얀 빈 공간뿐이었습니다. CES 할 때는 공간이 별로 없었는데, 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예수 이름의 비밀은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를 드러내놓게 했습니다. 제 안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놓는 것도 모자라 같은 조원님들의 간증과 삶으로 도전받게 하였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는 그분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한과씩 나아갈 때마다 예수 이름의 비밀을 묵상하면서 나의 옛 자아가 무참히 부서지고 깨어졌습니다. 제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했었는데 조원 간의 나눔을 통하여서 저보다 더 힘든 시기를 지내셨던 분도 계시고 지내시는 중이신 분들도 계셔서 제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예수 이름을 부르며 깊은 회개를 통하여 치유되고, 회복되고,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더욱 풍성한 삶과 비움을 통한 채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나의 자아가 예수님이 영으로 더욱더 가득 채움을 받고 싶습니다.

언제 다 끝나나 생각했는데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고난 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는 예수 이름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정말 엄청난 양육과정이었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었고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제 마음이 잔잔하게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 홍 담임 목사님, 사랑합니다. 인도자님, 사랑합니다. 조원 형제님들, 사랑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새롭게 믿음의 길로 나아가길 결단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비밀만 묵상했을 뿐인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송주현 성도 (W강남공동체)



예이비를 신청하기 직전, 제 인생에 가치관과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아픈 사건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일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경험하였습니다. 그 일로 정신과 상

담까지 받아보았지만 시원한 해답이나 해결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마침 새로운교회 예배 중에 예이비 공지를 보게 되었고 그 순간 이것이 제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 같이 느껴졌습니다. 왠지 예이비를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쳐버려 제 삶이 영영 구렁텅이에 빠져버릴 것 같은 불길한 예감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꽃피는 봄에 만난 예이비 조원들 그리고 인도자님과 바람 부는 가을까지 함께하며 저는 놀라울 정도로 변했습니다. 우울증으로 항우울제 정신과 약까지 먹으며 버텨야 했던 4월의 저의 모습에서 9월 초 저는 약에 의존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제 삶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 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에 친양하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것이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이비를 통한 소위 ‘훈련’을 하며 말씀묵상과 기도는 제가 죽고 사는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이름의 비밀만 묵상했을 뿐인데 기쁨과 환희와 희락이 찾아올 줄이야! 정말 예상치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11명이 있는 순예배와는 달리 4명의 소그룹으로 묵상 나눔을 하는 예이비에서는 예수 이름

의 비밀을 배워가기도 했지만 어디 가서 터놓고 얘기할 수 없는 극히 개인적인 속 깊은 비밀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제 삶의 은밀한 비밀이 자고통의 사건이 더 이상 제 인생의 끔찍한 사건도 고통도 아닌, 그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연단의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이비를 하지 않았더라면 저의 영적인 성숙은 제자리걸음이었을 뿐 아니라 우울감에 빠져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로의 순간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저를 놀라게 해주시며 저를 살려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고통’이나 ‘고난’ 혹은 ‘상처’라는 단어는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감사’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저를 들어서 깨끗하게 하시는 헬라어 ‘아이로’만 새기게 되었습니다.

예이비를 하는 중간에 교회 이전에 대한 공고가 떴고 경기도 안산에서부터 송파까지 더 멀어져서 ‘교회를 옮겨야 하나?’ 하는 심각한 고민에 빠진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저를 붙잡으시며 그 어려운 순간의 자리에 앉히시는 극단의 조치까지 취하시는 걸 보고 심지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 아니라면 절대 예이비 조원들 구성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기가 막힌 사연들까지 닭살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우리 예이비 조원들은 반드시 만나야만 했으며 하나님의 모든 계획안에 우리는 그저 속해있다는 것을 나눔을 할 때마다 소름 끼치도록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제 인생의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친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이비를 통하여 저의 삶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고수정B 성도 (E서초공동체)



먼저, <예수이름의 비밀>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예이비 모집 공지를 접한 주일. 웬지 모를 기대감과 궁금증에 주보를 챙겨 들고, 사역을 맡고 있는 유아부실로 들어갔습니다. 함께 섬기는 선생님들께 조심스럽게 예이비 프로그램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하나님과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며 꼭 하라고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예배 때 받은 기대감은 주님께서 심어 주신 마음이구나!’라는 감동과 함께 설렘으로 가득 차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인도자님의 연락을 받고, 조원분들과 일정 조율이 어려워 애를 먹던 중, 감사하게도 저희 순장님께서 선뜻 순모임 요일을 변경해 주셨습니다. “자매님! 우리 어차피 요일 변경 의논하기로 했었어요~ 예이비 너무 좋으니까 예이비 하고 은혜받으세요.”라는 순장님의 목소리가 아직까지 선명하게 들리는 듯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격려와 응원 속에 시작한 예이비는 그야말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교재에 성경 구절들을 적을 때는 기대감이, 영상을 통해 한 흥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큰 깨달음과 성령의 감동이 차고 넘쳤습니다. 교재를 다시 처음부터 읽으며 질문에 답하고 묵상할 때는 회개의 시간을 참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지는 저의 모습을 마주하기도 했고,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크신 위로와 사랑에 충만해지기도 했습니다. 인도자님과 조원분들을 만나는 시간은 날이 갈수록 그 깊이가 더 해졌고, 만나러 가는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로 차고 넘쳤습니다.

예이비를 하며 저에게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말씀 생활입니다. 모태 신앙이 아닌 데다 이과적 지식이 많다고 자부했던 저에게 늘 어려웠던 것 한 가지는 바로 성경을 의심 없이 온전히 믿는 것 이었습니다. 예배 중에도 제 지식과 충돌하는 순간들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성경을 읽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성경 1독을 매년 결심은 하지만 포기하기 일쑤였고, 그래서 부끄럽지만 아직까지 실천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예이비를 통해 그러한 의심이 사라졌고,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

습니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것을 체험하며, 예이비 중 성경 1독을 다시금 결심하게 하셨고, 그렇게 하루 7-8장 이상씩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이비 중에 첫째 아이가 운동 중에 코뼈가 부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 기도 부탁하며 나누던 중 인도자님께서 “평소에 보혈기도 하세요?”라고 물으시는데, 저의 대답은 ”보혈 기도가 뭐예요?”였습니다. 다들 깜짝 놀라 저를 쳐다보았지요. 보혈기도, 대적기도 등등 저에게 낯선 단어들이었습니다. 나름 양육 프로그램도 많이 참여했고, 순모임도 착실히 참석 중인데, 처음 듣는 말에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 생활에 대해 회개하고, 그날부터 매일 주님 보혈의 능력을 불잡고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제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일이건 주님께 간구하기보다는 세상적 방법을 찾으며, 제 능력과 지식을 믿고 해결하려 달려들고, 그게 잘 안 되면 주님을 찾았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이게 될까?’하는 의심이 마음 한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이비를 통해 주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예

이비 중에 이사 문제로 남편과 함께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원하는 집이 나오질 않아 중보기도 요청을 드렸고, 다들 약속의 땅에 관해 불잡았던 성경 말씀을 나눠 주시고 함께 중보해 주셨습니다. ‘이게 마지막 집인데, 기대가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남편은 집을 보러, 저는 예이비 만남을 가지러 갔습니다. 예이비가 끝나고 문자를 보는데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날 갑자기 새로운 집이 매물로 나왔는데 너무 맘에 들어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다른 분들이 ‘주님의 응답’이라는 말을 할 때면 도대체 응답은 어떻게 받는 건지 궁금하고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것이구나 싶었지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지도 않고 응답만을 바랬던 제가 어찌나 한심했던지… 이제는 압니다. 말씀, 기도, 예배 만이 살 길임을. 저의 모든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주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기도로 간구하며 뜨겁게 교제하는 삶을 원하신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제 자신이 숨결처럼 느낄 수 있는 인격적인 만남을 주님과 이어가고자 합니다.

예이비를 통하여 저의 삶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조현진 성도 (우연공동체)



‘예수 이름의 비밀’에 대한 은혜의 소문과 강력 추천, 그리고 저 스스로도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생각에 기대감을 가지고 예이비 양육과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조편성이 확정되고 첫 만남을 갖기 직전, 안타깝게도 이석증이 재발하고 말았습니다. 어지러움이 심한 날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면서 예이비를 팬히 신청한 건 아닐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유난히도 길게 느껴졌던 순방학동안 예이비가 없었다면 어떻게 버텼을까 싶습니다. 우리 조는 처음 만났음에도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들처럼 성격이나 고민하는 영역이 비슷했고, 이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첫 과인 ‘예수 Jesus’ 시간부터 이미 우리의 마음 문을 성령님께서 활짝 열어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매주 예수님의 이름을 배우고 서로의 고민과 아픔을 나누었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함께 성장해 나갔습니다.

특별히 ‘어린양 The Lamb’에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선포기도를 배웠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는 간절한 기도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평범했던 어느 금요일, 어린이 집에 아이를 데리러 갔는데 잘 놀고 있어야 할 아이가 바닥에 누워있으면서부

터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저희 아이가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 머리를 부딪혔는데, 아무도 그 순간은 보지 못했지만 조금 올다 그쳐서 팬찮은 걸로 생각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일과를 이어갔는데 아이가 꾸벅 꾸벅 졸아서 누워서 자도록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머리 부딪혔을 때 제일 안 좋은 증상이 잠드는 것이라고 알고 있던 저는 표정이 점점 굳어졌고,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아이는 급기야 울면서 머리가 아프다며 자꾸 토하려고 했고, 계속 몸이 저지면서 자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때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께 전화가 왔고 cctv를 확인해 봤는데 머리 충격의 정도가 심해 보이고,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으니 당장 응급실에 가보라며 떨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 패닉상태가 되었고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통화를 하는 사이 아이는 잠이 들었고, 저는 즉시 교회에 아는 모든 친지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중보기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잠든 아이를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불현듯 어린양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보혈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기도는 나오지 않았고 ‘예수님 보혈을 지훈이의 머리에 덮습니다’만 무한 반복했습니다. 이 순간 잠든 아이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는 보혈기도뿐이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도 놀라셔서 모두 저희 집으로 모이셨고 우리는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적처럼 아이는 한숨 자고 일어나서 팬

찮아 보였고, 기억소실과 두통이 있긴 하지만 크게 문제없을 것 같다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지금 저희 아들은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이비를 통해 얻은 은혜와 감사는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정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세 계절의 기도로 서로를 중보했습니다. 특별히 인도자님과 자매님은 만날 때마다 제 두 귀에 손을 대고 “이석증이 나았음을 선포합니다!” 하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이비 하는 동안 반드시 나을 거라고 늘 기도해 주셨는데, 저는 함께 기도하면서도 정작 이석증이 나을지 저 스스로는 계속 의심했었습니다. 사실 이석증

이 완치라는 개념이 없는 병이기도 했고, 맘마다 회전성 어지러움으로 잠을 잘 자지 못한 게 오래되어 지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병원을 4군데 옮겨봤음에도 치료의 끝이 보이지 않아 때론 낙심한 적도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는 해보지만 이석증이 쉽게 낫지 않을 거라는 더 강한 믿음이 저도 모르게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이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는 간증문을 써야 한다는 공지를 받고 이렇게 고백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비록 제 병은 낫지 않았지만,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평강의 왕 예수님이 계셔서 저는 평안합니다.” 결국 이렇게 쓰게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어리석은 마음을 감사하게도 인도자님과 자매님은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으로 바꿔 주시고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불안과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갔고, 그 과정에서 제 마음도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내 안에서 의심이 자라나도록 두고 보지 않겠다! 가장 완전하고 선하게 나를 이끄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자! 고통 중에 있는 성도 환우분들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 결단을 통해 저는 실수가 없으시고 신실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시간들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새로운 시즌을 맞이할 저의 신앙의 여정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예이비 15주간 모든 순간을 인도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어지러워서 운전이 어려웠을 때 병원까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조원들을 사랑으로 섬겨 주신 인도자님과 늘 밝은 에너지로 풍성한 나눔을 해 주신 자매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선물 같은 분들과 예수님을 자세히 알아가고 탐구하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 덕후가 된 것 같습니다. 봄, 여름, 가을 세 계절이 지나도록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각 과의 핵심성경구절을 암송하며, 한 흥 목사님 설교말씀을 반복해 들으면서 제 삶의 정말 많은 시간을 예수님 생각하며 보냈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체교회

2025.

11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

위기영아긴급보호센터 1670-5297

“상담은 아기도 엄마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24시간 긴급상담전화(아이구출)

러브 미니스트리 단체 소개:

04

베이비박스
주사랑공동체



러브 미니스트리 단체소개

베이비박스 주사랑공동체를 소개합니다!

긴급 위기 영아를 살리는
베이비박스 주사랑공동체

베이비박스는 부모의 피치 못할 사정 또는 아기의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유기 위험에 처해져 있는 아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생명 보호 장치”입니다. 베이비박스는 생명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부모와 아기의 생명을 모두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생명 박스로서 2009년 12월 주사랑공동체교회의 담벼락에 최초로 설치되었습니다.

주사랑공동체의 설립자 이종락 목사가 중증장애를 가진 친아들을 극진히 돌본다는 소문이 퍼지자, 중증장애로 인해 벼름을 받은 아기들이 하나 둘 이종락 목사에게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쌀쌀한 봄날, 새벽 3시경 한 남성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교회 대문 앞에 두고 가니 잘 보살펴 달라는 친부의 전화였고, 황급히 교회 문을 박차고 나온 이종락 목사는 굴비상자 안에 담겨 있는 아기를 보고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얼

핏 보기에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었던 아기는 추위에 떨고 있었고, 아기를 싸고 있는 담요에서는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생선 비린내를 맡으며 상자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길고양이를 쫓아내면서, 이종락 목사는 조금만 늦었더라도 아기가 추위와 고양이에게 해를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주사랑공동체
설립목적

이 일이 있은 후, 이종락 목사는 “아기들이 부모로부터 버려지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그 생명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외신을 통해 체코에서 운영되고 있는 베이비박스에 관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선진국의 유사 사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버려진 아이들을 안전하게 거두어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

러브 미니스트리 단체소개: 베이비박스 주사랑공동체

이라고 확신한 이종락 목사는 이를 위해 기도와 연구를 거듭했고, 그 결과 2009년 12월, 주사랑공동체교회의 담벼락에 한국 최초로 베이비박스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주사랑공동체
주요사역

베이비박스는 긴급 보호 사역으로 부모의 피치 못할 사정 또는 아기의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유기 위험에 처해져 있는 아기**를 **긴급 구제하여 보호**합니다. 긴급 보호의 대상은 친부모가 양육을 포기하여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기들이며, 주사랑공동체의 베이비박스는 이 아기들을 1~7일 보호한 후, 절차에 따라 국가에 인도합니다. 단, 주사랑공동체는 미혼모들의 양육 포기 및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놓고 가는 행위를 방임하거나 조장하지 않습니다. 주사랑공동체는 베이비박스를 찾는 미혼모들을 적극적으로 만나 이들이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양육을 포기하더라도 최소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양을 보낼 수 있도록 상담하고 있습니다.

영아수탁보호를 통해 친부모가 아기를 양육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나 당장 아기를 양육할 형편이 못 되는 경우, 주사랑공동체는 상담을 통해 아기를 수탁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영아 수탁 보호는 친

부모가 출산 직후의 힘든 상황에서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단기(1~6개월) 24시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상담을 통해, 위탁을 결정한 부모는 아기의 출생신고를 해야 하며, 약속한 위탁 기간 내에 아기를 되찾아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혼모 지원 사역**을 진행합니다. 각종 상담과 홍보 활동(전화, 내방, SNS, 소식지 등)을 통해, 생명의 존엄성을 알리고 주사랑공동체 및 정부, 협력 단체가 제공하는 미혼모 지원 서비스를 소개함으로 위기 임신 상태에 있는 미혼모의 낙태와 영아 유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미혼 임산부들에게 본 공동체와 협약 관계에 있는 병/의원이 제공하는 무료출산 서비스를 적극 알선하므로 미혼모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전하게 아기를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미혼모 거주 시설 지원을 통해 아기와 함께 생활할 곳이 없는 미혼모들에게 거주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므로 미혼모들의 양육 및 생활 안정을 돋고 있습니다. 또한 베이비케어 키트 지원을 위해 상담을 통해, 마음을 돌려 아기를 양육하기로 결정한 미혼모들에게 양육에 필요한 일체의 물품을 정기적(매월)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베이비케어 키트에는 기본물품으로 분유, 기저귀, 물티슈, 아기옷 등이 포함되며,

미혼모의 개별적인 요구에 따라 아기 목욕 용품, 로션, 약품, 책, 이유식, 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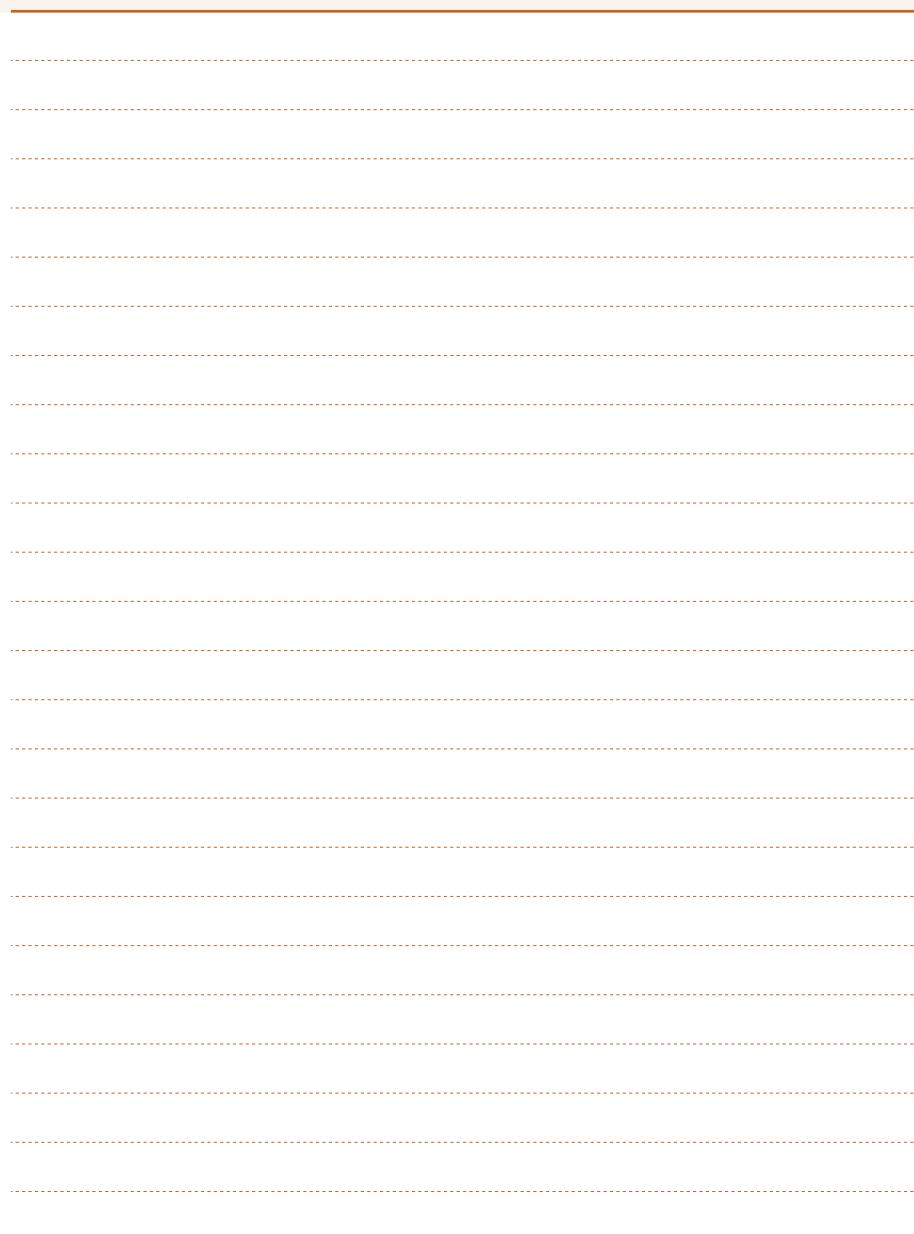
그 외 사회복지 기관, 의료 기관, 후원 기업 및 후원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미혼모들에게 생활비, 의료비 지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미혼모 자조 활동을 지원함으로 정기 모임 및 리트리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박스는 미혼모가 베이비박스에 이르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활동으로 건강한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 프로라이프(성 교육 포함) 활동 등을 통해, 고귀한 생명이 부적절한 관계에 의해 임태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또 임태된 생명이 낙태되지 않도록 하는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사랑공동체 기도제목

주사랑공동체는 베이비박스라는 통로를 통해 만나게 된 미혼모와 그들의 아기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 왔습니다. 미혼모들을 직접 만나 그들을 상담으로 위로하고 치유했으며, 또 상담을 통해 양육을 결심한 미혼모들에게 아기 양육에 필요한 일체의 물질적 지원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연약한 이웃을 섬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귀한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가길 소망하며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5 새로운교회 전도축제

전국이
있습니다

11/9 SUN 1-4부 예배 시
새로운교회 본당



Wednesday Prayer Worship



11월 수요기도예배 감사

11/5 이사무엘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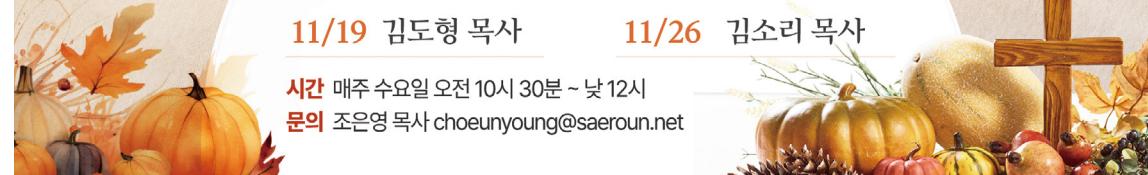
11/12 이준희 목사

11/19 김도형 목사

11/26 김소리 목사

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낮 12시

문의 조은영 목사 choeunyoung@saeroun.net





예배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한국교총 1층 컨벤션홀
사무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6길 56 삼준빌딩 3층

TEL (02) 597-0691 **FAX** (02) 597-0601 **WEB** www.saeroun.net